

# 금호석유화학, 27년 무분규협약 기록

## 통상임금에 상여금 600% 포함 임단협 체결 ... 2014년 임금인상 동결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김성채)은 11월2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을 통해 통상임금에 상여금 600%를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27년 무분규 협약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됨으로써 시간 외 근무수당 등에서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체결된 임금단체협약은 2014년 4월 임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금호석유화학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를 수용하는 대신 2014년 임금인상은 동결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에는 김성채 대표이사 사장, 양근주 울산고무공장 노조위원장, 이성팔 울산수지공장 노조위원장, 이치훈 여수고무공장 노조위원장, 송석근 생산본부장, 석대식 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는 “다양한 쟁점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통상임금 확대라는 큰 틀에 합의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임금단체협약은 금호석유화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11/21>